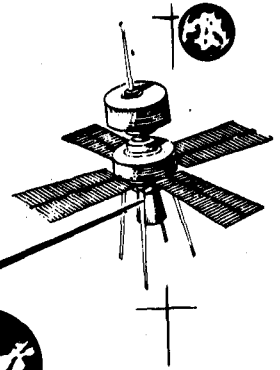


안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육계가격

육계생산자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도 당분간 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육계의 농장도 출하가격이 kg당 400원을 밑돌고 있
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출하가격을 잃은 2kg이상되는 것
부터 축협을 통해 수매를 시작했으나 가격회복으로 이
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된 데에는 그 원인이 과잉생산과 성수
기인 여름 삼복에 태풍과 폭우로 수해가 심했고 계속되
는 장마로 수요가 크게 감퇴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러나 과잉생산이나 수요감퇴문제도 그간 생산자들이 소
비자를 생각해서 그들이 마음놓고 즐겁게 소비할 수 있
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생산자의 힘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
분이 있다. 유통구조의 개선이나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일들이 후자에 속한다 하겠다.

이제 겨우 국민 1인당 연간 3kg정도 밖에 먹지않는 닭고

기를 100% 증산한데도 6kg 밖에 소비하지 못하는 결과
가 된다. 일본의 12kg에 비교하면 배로 증산해도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 과잉생산이라고 야단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닭고기가 기후나 사회적인 조그만 변
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얼마전 분유체화가 큰 사회문제화 되었던 낙농업계가
생산을 조절하지는 소극적인 방안에서 과감한 소비홍보
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돌린후 이제는 원유가 부족한 실
정이라니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다.

닭고기의 복잡한 유통과정과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이
닭고기를 하급식품화 하여 소비를 억제하는 중요한 이
유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 EC, 일본 등에서 닭고기의 소비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는 것은 값도 싸지만 닭고기가 맛도 있고
건강식이라는 홍보가 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많았고
많은 후궁을 수입하여 출중한 정력이 필요했던 솔로몬
왕의 식단에 닭고기가 올랐다는 기록과 이를 위해 닭도
이웃나라에서 수입했다는 기록들로 보아 역시 닭고기는
옛날에는 아무나 먹을 수 없었던 귀한 식품임에 틀림없
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은 육류소비의 80%이상을 닭
고기로 섭취하고 있다.

이러한 닭고기가 냉동창고 속에서 또는 노점에서 농
장에서 천대를 받고 있으니 안타가울 뿐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일부이긴 하겠지만 불행이 장기화
될 조짐인데도 입식을 권장하고 다니는 부화장 사료공

장이 있다는 보도는 분노를 느끼게 한다. 정보에 어둡고 영세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이러한 파렴치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이 수직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협회에서도 지방 영세육계업자들을 상대로 순회 좌담회를 개최하여 입식을 자제하여 줄 것을 권유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이기는 하나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생산자들이 육계산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무관심이 더욱 불황을 장기화하고 복잡하게 만든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월대로 되라는 생각이 문제이다.

지하철로 출퇴근 하노라면 명시(名詩)를 감상할 수가 있는데 그중 눈길이 많이 머문 金東煥의 시 "웃은죄"를

소개한다.

지름길 묻길래 대답했지요
 물한모금 달라기 샘물 떠주고
 그리고 인사하기 웃고 받았죠
 평양성에 해 안뜬대두
 난 모르오
 웃은죄 밖에

그런데 육계가격이 장기간 불황이 계속되며 다음과 같이 보여지고 있다.

육계하면 돈번다기 시작했지요
 병아리 받으라기 왕창 받았죠
 부화 사료회사에서 인사하기 웃고 받았죠.
 육계산업 망한대두
 난 모르오
 입식한 죄 밖에

아마도 아폴로 눈병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진 때문이리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哭)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한탄은 입식자제를 계속 호소해도 입식을 계속 하는 오늘날에 필요한 말이다.



4% 인상과 4% 인하

배합사료 가격이 9월에 오면서 평균 4%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일부 배짱있는 회사부터 인상하기 시작하였었다. 이번 인상은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한 자연스런 인상이 아니고 원료사료의 가격상승에 따라 원가상승 압력으로 부득이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배합사료공장의 주장이었다. 다만 시기적으로 낙농, 비육우, 양돈, 양계의 모든 축종이 어려운 시기에 가격을 인상하게 되어 마음이 괴롭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양축가들이여 어렵지만 이해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료회사들의 평균 4%인상에 끈이어 축협중앙회에서 배합사료가격을 평균 4%인하한다는 반격 발표인 9.5선언이 나오고 양축가들이 이를 전폭 지지함에 따라 사료가격 인상은 1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3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양축가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원료사료가격이 올라서 부득이 인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상하지 않을 경우 결손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허약한 회사부터 도산하지 않을 수 없어 양축가들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득이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인상을 철회하면서 납득할만한 아무런 해명이 없기 때문이다.

애당초 인상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다면 양축가들은 앞으로 사료공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양치는 목동이 심심할 때마다 늑대가 나온다고 소리치는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좀 있으면 사료값을 인상하지 못해 부작용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선 이번의 일부 사료공장들의 헤프닝은 양축가와 사료회사간의 그간 쌓아올린 신뢰감을 허무는데 지대한 기여를 한것 외에는 업계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였다.



식생활의 변화

우리나라도 점차 식생활이 서구화 되어가고 있다. 16일 보사부의 국민영양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86년10월20일부터 11월11일 사이에 전국 1천 가구를 조사)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육류소비량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육류소비가 감소한 것은 앞으로 양계산물의 소비홍보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정소비의 감소현상은 당분간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 섭취량

년 도 별	총섭취량	동물성식품 섭취량	비 고
85	1,049.6원	183원	동물성식품은 69년
86	1,068.2	183.3	년 31.7g 77년
전년대비	1.8%		85.2g, 85년 183g

식물성식품의 섭취량은 389.2g으로 전년보다 2.4%증가 하였는데 이중 과실류는 17.4%나 증가한 반면 곡류 및 그 제품은 1.5% 증가에 그쳤다. 이제 서서히 과실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가정에서의 육류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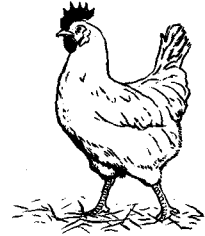
식비지출은 1인당 1일 평균 대도시가 1,213원 중소도시 945원 농촌 1064원으로 전국 평균 식비는 1083원이며 이중 주식비가 30% 부식비가 70%로 나타났다. 1,100원의 식비에 맞도록 계산물로 식단을 구성되 가정 소비와 외식소비로 나누어 소비추진을 별도로 계획하여야 하도록 되어가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이 16일 발표한 2/4분기(4~6월) 도시근로자 가계동향조사보고에 따르면 식료품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하였는데 이중 가족들과 함께 외식에 사용한 비용의 증가는 49.6%가 증가해서 식품비중 외식비의 비율이 지난해 2/4분기의 10.1%에서 13.6%로 높아지고 가계당 월평균 외식비용은 17,500원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이 이렇게 급성장하는데 양계산물을 이용한 외식산업개발에 연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튀김닭고기로는 외식산업의 기선을 장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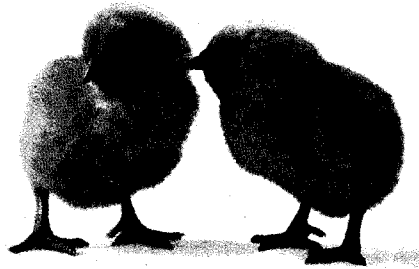
근로자 가계소득의 내용이 근로소득 458,500원(13.8%

증가)과 부업 및 기타소득이 74600원(26.2%증가)으로 근로소득 중에는 가장이 아닌 가족의 근로소득이 31.5%가 들어 있어 이제 주부의 위치가 맞벌이 부부의 위치로 변함에 따라 외식산업은 더욱 발전할 전망이다. 급속히 변화하는 식생활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느냐는 양계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양계**



값싼 병아리
튼튼한 병아리

이것이 **한일농산**의 기본정신입니다.



하이브로 : 하바드

진실을 추구하는 양심적인 부화장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업본부 : 경기 이천 이천축산
판매점 : 충남 당진 회망축산
 경기 여주

(전화 0336-32-6168)
(전화 0457-2-2162)
(전화 0337-82-5830)